8-3-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이사야 34:1-10
말씀제목: **임박한 대 환란 심판과 교회의 휴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온 세상 민족들과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육천 년 동안을 육 일처럼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도 이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며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마 24:21-22)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 환란에 대하여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될 것이며 자신을 메시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단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 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0:4-7)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호 5:15-6:2)

대환란 때 고난 받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회복되어 그들을 위한 천년 왕국(셋째 날)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온 세상 민족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사 34:1-5)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대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실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았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사 63:1-4)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니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살전 5:1-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기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8-9)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임박한 대 환란과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과 UN 은 오는 9 월 23 일에 팔레스타인 정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가 함께 공존해야 함에 대하여 표결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는(part)시도를 하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two state solution 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중동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었다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갑작스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도 이날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게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욜 3:9-14)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대 환란 직전에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임박한 그날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